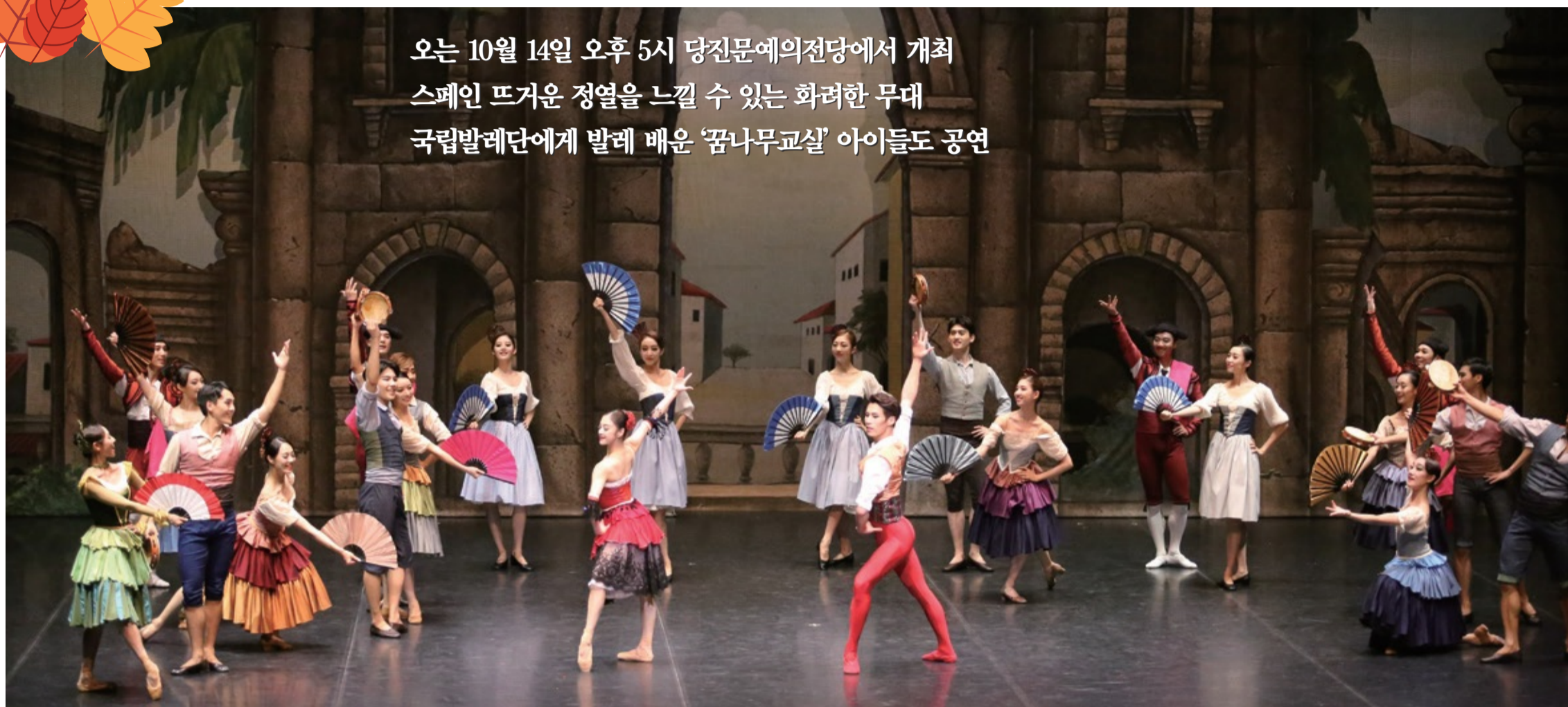




예술인 열전 |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돈키호테> & 발레 꿈나무 어린이의 감동의 무대가 펼쳐진다

오는 10월 14일 오후 5시 당진문예의전당에서 개최
스페인 뜨거운 정열을 느낄 수 있는 화려한 무대
국립발레단에게 발레 배운 '꿈나무교실' 아이들도 공연



국립발레단 Fly Higher with KNB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돈키호테>가 오는 10월 14일 오후 5시에 당진문예의전당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서는 2023년 국립발레단의 공익사업인 '꿈나무 교실' 참가자들과 국립발레단 단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2021년부터 시작된 국립발레단의 주요 공익사업 '꿈나무 교실'은 지역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발레를 교육하는 사업이다. 발레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에게 국립발레단 단원들이 무료로 발레를 알려주고, 단원과 함께 무대에 올라 함꼐 공연 출연까지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사업이다.

당진문화재단은 국립발레단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당진시 거주 초등학교 학생들을 모집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발레 수업을 진행했다. 강습은

꿈나무 교실에서 두 차례 강습을 받았던 국립발레단 전 솔리스트 신현지 강사가 담당했으며, 수업은 앙 아방(en avant) : '앞쪽으로'라는 뜻의 무용수의 팔 동작 중 하나, 앙 오(en haut) : '높이'라는 뜻으로 두 팔의 높이를 머리 위로 유지하는 것, 턴 아웃 등의 팔다리의 기본동작부터 공연을 위한 심화 동작 순으로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무대를 날아 오르는 발레 꿈나무

한편 오는 10월에 열릴 공연은 10분 내외의 '꿈나무 작품'과 70분 내외의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로 진행된다. 꿈나무 작품의 제목은 'Wings'로 약 9개월 간 전문가의 지도를 받은 참여 학생들이 참여해 첫 무대로 선보인다. 'Wings'는 열정적으로 발레 수업에 참여한 당진지역 초등학교생들의 팔에 날개를 달아 유려하고 열의 있는 발레 동작들로 무대 위에

서 날아오르며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함께 호흡을 맞춰 한마음으로 연습해온 발레 꿈나무들의 이번 창작 무대는 공연 그 자체만으로도 관객들의 감동을 자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경쾌하고 화려한 뜨거운 정열의 공연

학생들의 공연에 뒤이어 펼쳐지는 국립발레단의 프로그램은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돈키호테>이다. 이 공연은 국립발레단이 발레의 대중화를 위하여 전막 작품의 주요 장면을 뽑아 해설과 함께 선보인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시리즈 중 하나로 관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있는 작품이다. 등장인물인 가마쉬가 해설과 함께 극을 이끌어가며 작품의 이해를 도와 발레를 처음 접하는 관객들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공연은 선술집 딸 키트리와 이발사 바질의 우여곡절 사랑 이야기를 담은 본 공연은 전 3

막으로 구성된다. 1막에서는 투우사와 스페인 여인들의 흥겨운 춤이 광장에서 펼쳐지는 가운데 선술집 주인의 딸 키트리가 등장한다. 2막에서는 키트리의 아버지 로렌조가 키트리에게 가마쉬와 결혼하라고 종용한다. 3막에서는 결혼 예복을 입은 키트리와 바질이 등장하고 둘의 영원한 사랑을 만인 앞에서 맹세하는 그랑파드되(2인무)를 춤춘다. 국립발레단 클래식 발레의 정수인 '돈키호테' 그랑파드되를 비롯해 환당고, 지그, 투우사의 춤 등 경쾌하고 화려한 캐릭터 댄스 등 스페인의 뜨거운 정열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한국 발레 역사의 상징 '국립발레단'

한국 발레 역사의 상징과도 같은 국립발레단은 1962년에 창단된 최초의 직업발레단으로 국내 최고의 무용수들과 함께 세계 유명 작품을 레퍼토리로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작

품으로는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호두까기인형>, <백조의 호수>, 파티시바리의 <지젤>, 마르시아 하이데의 <잠자는 숲 속의 미녀>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마리우스 프티파의 원안무작 <해적>(2020년)과 <돈키호테>(2023년)를 국립발레단만의 버전으로 각색 및 재안무하며 전막 발레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있다.

국립발레단은 발레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 러시아뿐만 아니라 벨기에, 캐나다 등에서 발레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발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활발한 문화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발레단의 무용수들과 당진시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미래의 발레리노-발레리나들의 발레를 애정하는 한마음으로 만들어 나갈 본 공연은 시민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힐링을 선물할 것이다.

한편 이번 공연은 전석 2만 원이며, 48개월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은 당진문예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당진문화재단 설립 10주년

지역 문화 환경 조성의 '안착기' 지나 일상 속 문화 공유라는 '전환기' 까지



제26호 - [1기 출범기] 내용 확인하러 가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당진문화재단이 설립됐다. 당시만 해도 당진은 말 그대로 문화예술에 소외된 지역이었다. 사람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욕망은 있었지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 그 창구의 역할을 하기 위해 재단이 들어섰다.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연과 전시, 교육 사업 전반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러면서 창의성과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지역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 정착했다.

당진의 문화예술발전에 있어 역할을 해 온 당진문화재단의 지난 10년의 역사를 △출범기 △안착기 △전환기 △팬데믹 위기 극복기 △도약기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당진문화재단 설립 후 안착기에 이르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그리고 새로운 전환을 맞이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전환기를 수록한다.

[2기 안착기]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 사업 다양화 확산 출범 3년 만에 국비공모사업 3배 증가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기 안착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김홍장 당진시장의 이사장 체제로 운영됐다. 김홍장 이사장 취임 6개월 만에 당진문화재단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됐다.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육성제도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은 수준 있는 민간 예술법인 등을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제도다. 이와 더불어 '당진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문화도시 당진 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마련했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문화로 행복하고 변화

하는 당진'이란 미션 아래 '당진문화가치창조, 문화 생태 선도 구축, 균형 있는 문화향유, 문예활동 안정지원'을 목표로 수립됐다. '시민과 함께'라는 가치에 걸맞게 문예의전당 공연 향유 기회 또한 크게 확대됐다. 2016년 기준 기획공연 누적 관람객 수가 2013년에 비해 2배 늘어났다. 국비공모사업 역시 2014년 1억여 원에서 3억여 원으로 증가했다. 재정 또한 세입, 세출 모두 출범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당진문예의전당 공연이 질적, 양적으로 모두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과 같은 국비 보조사업 유치가 큰 몫을 했다. 이를 통해 재단은 예산을 절감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할 수 있었다.

완성된 공연을 초청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공연 자체를 기획, 연출하는 등 다양한 시도도 이뤄졌다. 당진문화재단은 2016년 최초로 기획 제작 공연으로 <아미산>을 선보였으며, 이듬해 2017년 <아미산2>를 제작해 공연했다. 또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해 정책 개

발을 꺾는 동시에 다방면의 문화예술 간담회와 포럼을 개최하여 토론하는 문화를 정착시켰다.

세부사업별, 지원 대상자별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의 방식부터 대상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했다. 당진문화재단은 과거 경직되기 쉬웠던 공공행정의 일방적인 문화행정서비스로부터 한층 유연해진 행정서비스체로의 이행을 선도해 나가며 민-관 합동모델로서 거버넌스 체계를 이뤄내고자 노력했다.

당진문화재단 10대 사업으로 꼽히는 주요 사업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기획됐다. 2015년 12월부터 당진문화예술학교를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전기를 마련했다. '시민문예(시민문예아카데미)'와 더불어 '예술감사아카데미'가 개설됐으며, 재단 산하에 '당진시민오케스트라'가 창단됐다. '문화동아리주간사업' 및 '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역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아리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강화했다. 현재 재단의 시각예술분야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성장한 '당진 올해의 작가전', '당진 이 시대의 작가전', '당진 올해의 사진작가전, 문학인 지원 사업인 '당진 이 시대의 문학인 출판사업'도 이때 태동했다.

이밖에도 '지역공연단체지원', '연습공간지원',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지원', '문화기획

인력 양성프로그램' 등 지역문화 활성화의 필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지역문화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됐다. 또 지역의 문화자산을 수집하고 정리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등 당진 고유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 역할도 수행해나갔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당진문화예술총서 발간사업'이 이 시기에 신설됐다. 더불어 재단 내에 당진예술자료센터를 개소해 지역의 귀중한 문화자료를 기증받아 보존하고 있다. 이 시기 추진된 일련의 사업들을 통해 당진문화재단이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자금 배분기관의 역할에서 나아가 근원적인 문화 환경을 조성해나가고자 했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3기 전환기]

민간 이사장 취임, 창의성과 전문성 독립성 갖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8 최우수문예회관 선정

기초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은 기존의 중앙집권적, 관료중심적 문화행정에서 민간주도 자율적 책임 운영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정책을 펼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재단은 문화의 소비자에 국한됐던 시민들이 문화적 욕망을 직접 실현함으로써 문화의 주체자로 발돋움하는 가능성을 여는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이사장 시대를 연 3기 전환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기 전환기는 2017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불어 닥치기 직전인 2018년까지다.

행정기관인 당진시가 맡아왔던 문화예술발전과 시민의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관련 시책, 콘텐츠 개발이 민간이사장을 필두로 한 전문예술기관인 문화재단으로 온전히 전환됨으로서, 보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문화예술 지원과 정책 시행을 펼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그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선정하는 '최우수문예회관'으로 선정돼 '2018 문예회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문예회관상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전국의 200여개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위해 가장 뛰어난 운영성과를 이룬 문예회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외부 심사위원들이 최근 3년간의 공

연장 운영성과를 다각도로 엄정히 평가해 매년 1개의 공연장을 선정한다.

한편 지역의 문예회관이 공공극장에서 지역 문화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중 가장 두드러지는 효과는 지역 주민의 문화적 자긍심 향상이다. 당진 시민들은 "지역에서 전례 볼 수 없던 수준 높은 공연을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며 스스로 지역 문화예술 공연의 홍보대사를 자처했다. 지역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 역시 공공극장과 전시관에서 자신의 문화예술적 기량을 선보이고 키워나갈 수 있었다.

당진문화재단은 당진문예의전당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문화기본권을 제공한다는 공공극장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 전시를 제공했다. '그랜드시즌', '키즈스테이지', '당진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 '찾아가는 문화선물', '대외협력사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재단은 문예의전당 밖으로 나아가 지역 곳곳에서 공연을 개최하고 시민들을 만났다. '찾아가는 문화 선물'을 비롯해 외부에서 진행된 공연이 2015년 8건에 그쳤던 데에 비해 2017년에는 43건으로 2019년에는 6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고 지역 예술가와 단체의 활동에 무대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문화복지에 기여하는 등 당진문화



재단이 지역 문화에 미친 영향은 다양한 수치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 당진문예의전당 기획공연은 2013년 25회에 그쳤던 데에 비해 2018년에는 123회로 6배 가량 증가했다.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의 기획전시 역시 전시 횟수와 누적관람객 수가 눈에 띄게 늘어 2018년 전시관 누적 관람객 수가 1만4013명에 이르렀다. 문화예술교육 참가자 수도 2017년 1115명으로 지원금액은 3334만 원에 이르렀다.

당진문화재단은 물론이고 전국의 공공극장에서 문화복지의 일환으로 대중을 위한 무료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무료 공연은 시민들에게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개최 의의와 달리 '무료 초대권'으로 인식되어 문화예술상품에 대한 가치를 절하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당진문화재단은 2018년부터 '당진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의 입장료를 전석 천 원으로 설정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임으로서 문화예술 상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관람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저렴한 입장료로 양질의 공연을 관람



하는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화 공연을 향유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재단은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 전문 예술인의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사업에도 매진했다. '당진 올해의 작가전'을 비롯한 시각분야에 이어 문학분야에서도 '당진 이 시대의 문학인', '당진 올해의 문학인', '당진 신진 문학인'을 선정하고 출판 사업을 지원했다. 전문예술가 집단 및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아리를 육성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가 활발해지고 보다 더 많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때 자생력을 전제로 한 지원과 더불어 지원 기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문화가 ISSUE

당진문화재단 소식지 문화가 이슈(ISSUE)는 문화애호가를 위한 문화소식지입니다.

당진문예의전당 문화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당진문예의전당 기획 공연 및 전시의 할인혜택 및 소식지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상세내용은 당진문예의전당 홈페이지에서 (www.dangjinart.net)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7호 2023년 9월
충남 당진시 무수동2길 25-21
(당진문예의전당) (재)당진문화재단
T. (041)350-2911
www.dangjinart.kr

발행처 (재)당진문화재단
발행인 박기호(당진문화재단 이사장)
편집총괄 김이석(당진문화재단 총장)
기획총괄 김명재
사업운영 나재형
사업담당 오세원
운영위원 오수용 | 김윤희 | 인치수
취재·편집·인쇄 (주)당진시대신문사
편집 및 광고문의 041-350-2911

문화가 이슈(ISSUE)에 실린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재)당진문화재단에 있습니다. 본 책자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당진문화재단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 당진문예의전당 핵심사업

남녀노소 모든 관객을 춤추게 하는 그 공연! 뮤지컬 <맘마미아!>가 당진에 온다!

뮤지컬 역사상 전 세계에 가장 빠르게 퍼진 뮤지컬!

2004년 초연 이래 뛰어난 작품성과 대중성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한국 최고의 뮤지컬로 자리매김한 공연!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뮤지컬 <맘마미아!>가 드디어 오는 9월 8일과 9일, 10일에 걸쳐 총 3일 동안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열린다.

<댄싱퀸>, <맘마미아>, <하니하니> 등 제목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세계적인 팝그룹 ABBA의 22개 히트곡들로 꾸며지는 이번 공연은 엄마 '도나'의 우정과 사랑, 딸 '소피'의 자아 찾기,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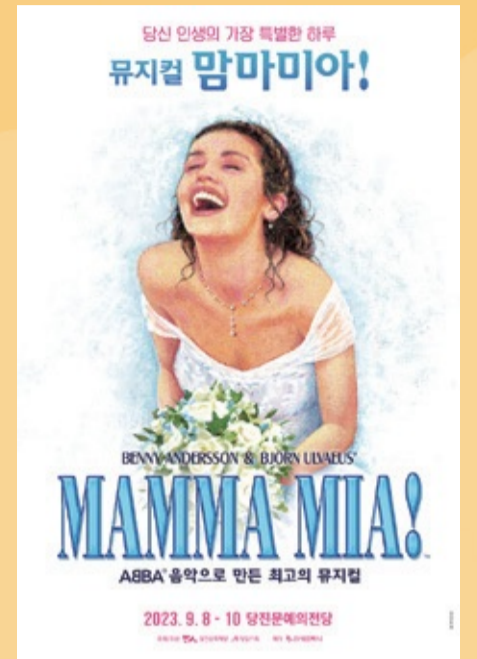
엄마와 딸의 가슴 먹먹한 이야기로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주는 작품이다. 또한, 잔잔한 물결이 넘실대는 아름다운 그리스 섬을 옮겨놓은 듯한 감각적이고 세련된 무대와 아바의 전성기를 연상하는 화려한 무대의 상으로 관객들은 눈과 귀가 동시에 즐거운 신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선보이는 뮤지컬 <맘마미아!>는 배우 최정원, 신영숙, 홍지민, 김영주, 박준면, 김정민 이현우 등 기존의 맘마미아를 이끌어온 주역들과 250: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새

롭게 선발된 소피 역의 배우 김환희, 최태이가 합류하였다. 또한, 2023 맘마미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새로운 멤버, 배우 장현성, 민영기, 김진수, 송일국, 김경선, 김시영이 함께하고, 여기에 에너지 넘치는 20명의 앙상블까지 더해져 무대를 꽉 채울 예정이다.

남녀노소 모든 관객을 춤추게 하는 당신 인생의 가장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줄 뮤지컬 <맘마미아!>는 8세 이상(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며 당진문예의전당 홈페이지,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 일시: 2023.09.08(금) 19:30 / 09.09(토) 14:00, 19:00 / 09.10(일) 14:00
-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관람료: 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9만원
- 관람대상: 8세이상(초등학생이상)



향수가 가져다주는 기억감상회 <메모리아, 당진>

당진시의 명소에서 음악과 영화를 감상하며 향수(香水)를 만든 특별한 하루가 평생에 향수(鄉愁)로 남을 특별한 기억이 되는 시간

(재)당진문화재단의 복합문화체험 프로그램 '향수가 가져다주는 기억감상회 <메모리아, 당진>'은 2023 지역문화전문 인력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다. 당진시의 문화예술적 공간을 발굴해 활성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당진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본 프로젝트는 당진시의 숨겨진 명소들에서 각각의 컨셉에 맞춰 적합한 향과 장르로 조향 체험과 음악회 및 영화 감상회로 이뤄졌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향이라는 매개로 공간을 보다 의미 있게 기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음악회 및 영화 감상회를 함께 진행해 예술적 감수성 향상에 기여하고, 당진시의 공간에 문화적 공간으로

서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총 2회차로 진행되며, 1회차는 9월 16일 토요일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산생태공원에서 조향 체험과 음악회가 열린다. 2회차는 9월 23일 토요일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화공감터에서 조향 체험과 영화 감상회를 진행한다. 각 회차별 프로그램 진행 현장은 촬영 후 영상으로 제작해 배포될 예정이다.

- 일정 및 장소
[1회차] 2023.09.16(토) 16:00 / 당산생태공원
[2회차] 2023.09.23(토) 16:00 / 문화공감터
- 관람료: 전석 무료
- 관람대상: 당진시에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를 둔 14세이상 시민



전원경의 아트살롱 <그림콘서트>

미술과 음악의 절묘한 만남! 당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그림콘서트

2023년 당진문화재단 10주년을 기념하며, 특별 프로그램으로 선보이는 전원경의 아트살롱 <그림콘서트>는 미술과 음악이 함께 이루어진 액처콘서트이다. 본 공연은 사계절로 나누어 봄을 맞은 파리, 로마의 여름 햇살, 가을 고독한 뉴욕,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바람까지 총 4계절을 주제로 구성

되어 있다. '뉴욕의 가을'이라는 유명한 재즈 넘버의 제목처럼 가을은 뉴욕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이다. 뉴욕은 세계 최고의 대도시로 경제와 문화 자본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자랑하는 도시다. 그러나, 뉴욕의 화려한 명성과는 또 다르게 뉴욕어들은 철저히 개인적이며 또 고

독한 사람들이다. 가을과 고독, 그리고 뉴욕어를 연상케 하는 여러 음악들과 1920년대 '재즈의 시대'를 이끌었던 거센의 재즈곡들, 그리고 20세기 뉴욕 미술을 세계 무대의 정상급으로 올려놓은 호퍼와 로스코의 작품들과 함께 뉴욕어들의 가을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 일시: 2023.09.20(수) 19:30
-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
- 출연: 출연:해설자 전원경외 4인
- 관람료: 전석 1만원
- 관람대상: 8세이상(초등학생이상)



이머시브시어터 <그라비티 스페이스>

관객 참여형 공연 몰입형 실감콘텐츠 이머시브 SF 뮤지컬!

<그라비티 스페이스>는 관객참여형 공연(이머시브시어터)으로 관객이 무대 위 배우들의 연기를 수동적으로 감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작품에 참여하는 공연이다. 우주선에 탑승한 관객들이 홀로그램 시를 따라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와 '우주'의 상상력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체험형 공연이다. 상상하는 모든 것을 실현시켜주는 인공지능 캐릭터 콘과 다른 등장인물을 연기하는 실제 배우들의 대화에 집중하다보면 어느새 관객도 모르게 이들과 함께 스펙타클한 우주 여행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화려한 배우들의 재밌는 연기, 그동

안 숨어있던 여러분들의 영감을 찾아 내며 더욱 아름다운 한편의 작품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자 한다.

- 일시: 2023. 10. 19(목)~10.22(일) / 11:00, 14:00 (1일 2회 / 총 8회)
-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관람료: 전석 무료
- 관람대상: 8세이상(초등학생이상)

• 당진문화예술학교 핵심사업

아트에듀콜로키움 - 예술강사 전문교육과정

충남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나서는 강사들의 전문성을 올릴 아트에듀콜로키움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충청남도과 충남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는 '기초문화예술교육센터 구축지원 사업'에 선정된 당진문화재단(이사장 박기호)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당진문화예술학교의 문화예술교육 전문화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 실기 위주의 기초교육이 주를 이루었다면, 2024년부터는 문화예술교육사 기반의 전문교육과정, 인문학 강의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 기초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충남지역 강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시범 교육과정을 통한 운영으로 '당진 아트에듀 콜로키움' 문화예술강사 전문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총 6강의 커리큘럼을 구성했으며, △1강(8월 29일) 문화예술개론 △2강(8월 31일) 현장 미술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의 이해 △3강(9월 5일) Be C-olbal △4강(9월 7일) 음악 아카데미와 렉처콘서트 기획 방향 △5강(9월 12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

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6강(9월 14일)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으로의 움직임 교육이 이어진다.

프로그램 수강신청은 당진시평생학습통합플랫폼 배움나루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화예술전문교육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당진문화동아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진행

올해로 9년째 운영되고 있는 '당진문화동아리 역량강화사업'은 동아리 단계별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배달강좌)을 지원해 동아리 구성원의 직접적인 실력 향상은 물론 지역 생활문화 동아리 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관내외 경쟁력 있는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당진생활문화예술제

(문화동아리주간사업)에 1회 이상 참여한 단체, 당진문화진흥공모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던 단체 중 생활문화 동호회 성격의 단체, 관내 생활문화동아리로서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자체 행사를 지속한 동아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올해는 공고를 통해 17일간 단체를 모집했으며, 1차 행정검토, 2차 선정심의를 거쳐 총 20개 단체 88회

차 지원을 확정하였다. 동아리 배달 강좌는 7월부터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11월 말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로서의 공동체 활성화, 생활문화 활동을 통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문화도시 추진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3 시민문예아카데미 - '사진으로 말하다' 수강생 전국 사진공모전 대거 입상

당진문화예술학교에서 운영하는 2023 시민문예아카데미 '사진으로 말하다(강사 인주리)' 강의 수강생들이 (사)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사진 공모전에서 다수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수강생들은 총 4개의 전국 사진 공모전에 입상하며 사진작가로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수강생들이 문화예술전문교육을 통해, 전문예술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수상자명단>

공모명	수상명	성명	작품명
제31회 강릉전국사진공모전	가작	장기향	어디로갈까요
	입선	장세자	현실남매
제33회 천안전국사진공모전	입선	이기성	장고항등대
제11회 부안전국사진공모전	입선	장기향	신념
제30회 논산전국사진공모전	입선	이기성	비오는날의수채화
	입선	장세자	굴뚝의아내네들
	입선	장기향	네마음의중심에있느니라!



어디로 갈까요(장기향)

2023 당진 문화예술 실무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 성료!

당진 내 문화예술 분야 관계자와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3 당진 문화예술 실무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당진 문화예술 실무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는 공통, 공연, 시각, 전통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10개의 강의로 구성됐다. 특히 현재 문화예술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요소를 주제로 선정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변화와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각 강의는 보조금 정산, 홍보, 저작권,

권리보호, 디지털 아트, 챗GPT, 도시재생, 다원예술, 갤러리, 배리어프리에 대한 주제로 7/11(화)부터 8/10(목)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당진 문화예술학교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단체 및 당진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는 총 378명이 수강하였고, 10개의 강의 중 8개 이상의 강의를 수강한 수강생 16개 단체, 개인 1명에게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당진아트투어 -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서 '지역문화 우수 사례상' 수상

당진문화재단(이사장 박기호)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진아트투어 '동동 당당, 소소한 모험'이 지난 7월 5일부터 7일까지 전북 전주시 팔복 예술공장 일원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에서 지역소생 부문 지역문화 우수 사례상(훈격: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최로 열린 박람회는 전국 기초단위 문화재단 간 업무역량 증진과 정책 과제와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자 개최되었으며, 전국 115개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동동 당당, 소소한 모험'은 2021년 코로나로 인해 문화활동과 지역관광 등이 위축된 시기, 예술과 지역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소규모 관광 프로그램으로 10명의

아티스트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예술가의 시선으로 당진을 해석하도록 하였다. 지역 내 곳곳에서 전시 및 공연, 다이닝 프로그램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지역과 예술, 관광을 결합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과 인스타그래머블한 콘텐츠로 MZ세대에게 당진을 새로운 시각으로 소개한 점이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박람회 우수사례 부스 전시회 현장에서 "당진 아트 투어" 프로그램 중 일부인 '움직이는 차(茶) 수레'를 재현하며, 지역의 전통주인 두견주 및 순성맥주, 해나루 쌀 등을 시음하는 등 현장에 참여한 관계자 및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당진문화재단 김이석 총장은 "제2회 전국문화재단 박람회에서 당진문화재단이 수상하여 큰 영광이며, 전국

지역문화의 교류의 장에서 당진의 문화와 예술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통해 앞으로도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꿈꾸는 당진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3년 하반기 문화공감터 전시 및 공연

“다시 문화공감터로”

2023 문화공감터 무료 영화 상영 <당진 목요시네마 : 영화장날>

문화공감터 목요시네마 **영화장날**

문화공감터에서는 당진시민들의 영화문화 향유 기회를 마련하고 영화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매주 목요일마다 높은 작품성과 예술성이 있는 다양한 영화를 무료 상영하고 있습니다.

2023.07.27.- 12.14. 매주 목요일
1회: 14:00 | 2회: 19:00
문화공감터 4층 공연장

관람료 무료

관람문의 | 041)350-2960~4

* 본 상영은 비지정작품으로 선착순 입장입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문화공감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당진 목요시네마: 영화장날> 영화 상영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당진 목요시네마는 과거 당진 지역의 유일한 극장이었던 당진 시네마(현 문화공감터) 건물 4층 공연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무료 영화 상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 대중성과 작품성을 고려한 작품들을 상영하고

있다. 당진문화재단 관계자는 “올 가을 당진 목요시네마를 통해 시민분들이 문화공감터에서 옛 영화관의 추억을 떠올리며 문화생활을 맘껏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남은 영화 상영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14일 동심초/그녀에게 △9월21일 배드가이즈/아들 △10월5일 여느 여대생의 고백/기생충 △

10월12일 내가 죽기 전에 가장 듣고 싶은 말/덩케르트 △10월19일 동경이야기/리턴 △10월26일 자매의 화원/러브레터 △11월2일 아라비아의 로렌스/어느 가족 △11월9일 오발탄/화양연화 △11월16일 귀로/플랫폼 △11월23일 찬실이는 복도 많지/나쁜 피 △11월30일 자유부인/콰이강의 다리 △12월7일 그린 북/베르네부인의 장미정원 △12월14일 어쩌다 공주, 닭냥이 왕자를 부탁해/미션

<편집자주>

한때, 당진극장(구 당진시네마, 현 문화공감터)은 지역에서 유일한 극장이었다. 1960년대 문화공간이 전무하던 시절, 시민들에게 이곳은 만남과 소통, 오락, 문화, 향유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서면서 점점 쇠락의 길을 걸었다. 결국 2019년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됐다.

과거 당진극장에서는 영화를 상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예인 공연이나 코미디쇼 그리고 전당대회까지 열렸다.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다양한 목적의 시설로 활용됐다. 문을 닫고 점점 잊혀지던 당진극장이 새롭게 태어났다. 다시 당진의 문화 구심점이 될 문화공감터로. 쉽게 볼 수 없었던 영화를 이곳에서 보여주던 당

진극장의 원점을 되돌려 목요일마다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 장날도 진행된다. 또한 새로운 전시도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배움의 한이 깊었던 할매들이 글을 익히고, 그림을 그린 당진해나루시민학교의 ‘늦게 피는 꽃’ 시화전에 이어 기획전시 <평행선>이 개최된다. 다시 문화공감터가 살아나고 있다.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곳, <문화공감터>

시민문화예술공간 문화공감터

문화공감터는 시민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옛 당진 시네마 건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민문화예술공간으로 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오픈스튜디오 등 다양한 시설을 대관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운영시간 **평일 09:00 ~ 21:00 / 주말 09:00 ~ 18:00**
휴 관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이용료

구분	이용기준	금액	초과이용 가산
공연장(4층)	1일(09:00~21:00)	50,000원	이용기준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가산
	오전(09:00~12:00)	10,000원	
	오후(13:00~17:00)	20,000원	
	야간(18:00~21:00)	20,000원	
기본 시설	중 연습실(3층) 1회(4시간 이내)	10,000원	1회(4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원 가산
	소 연습실(3층) 1회(4시간 이내)	5,000원	1회(4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원 가산
	전시실(2층) 1일	10,000원	
	옥외전시실(4층) 1일	5,000원	
부속 시설	냉·난방시설 1회(4시간 이내)	10,000원	1회(4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원 가산

대관절차

문화공감터는 원도심의 중심이었던 옛 당진시네마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총 4층 건물로 구성되어 공감터를 오르는 개방문을 열어 시민과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공간 1층을 시작으로 문화공감터만의 획기적인 테마를 보여주는 기획전사 2층에서 펼쳐진다. 3층은 공연예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실과 책방 주인이 될 수 있는 오픈스튜디오가 있으며, 다양한

장르를 소통하는 연습공간인 소연습실 2개, 중연습실 총 3곳으로 대관하고 있다.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을 마쳐 지역예술인들의 사랑받고 있는 문화공감터의 공연장이 4층에 위치해 현재 목요시네마(영화장날), 음악회, 연극, 강연 등 다채로운 기획공연과 문화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진의 복합 문화공간인 문화공

감터가 누구나! 언제나! 공감터 어디서나! 사용하고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꼭 한번 찾아 문화를 즐기고 느끼고 채워시길 바란다.

홍보영상
https://youtu.be/oyuhqrMUz7Y
주소: 당진중앙2로 76 (구 당진시네마)
번호: 041-350-3577

문화산책

[2023 당진문화재단 전시공간활성화지원사업]

당진 미술여행

※ (재)당진문화재단은 관내 민간이 운영하는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을 선정하여 전시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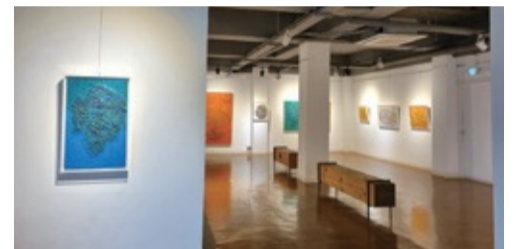
[순성미술관]

Harmony – 오래된 정원 展 23.06.01. ~ 06.30.

퇴적된 시간성과 중첩의 회화적 고민

자연에 함유된 작가의 실존으로부터, 창의적 역설을 도구로 하여 독창적인 시각으로 반복된 선과 종이의 축적을 통해 퇴적된 시간성과 다양한 매체의 중첩에서 작가의 회화적 고민은 조화로 설명되어 진다. 시대적 화두로 극명해지는 사회적 조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고를 Harmony 展의 기획의도로 삼는다. 오브젝트를 통해 회화가 갖는 확장성과 시대적 화두인 조화에 대한 궁극적 가치를 다양한 선과 종이 물감의 퇴적에서 자연의 한 단면을 찢어다 놓은 듯한 작가의 시선을 보여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질적인 깊이를 강조하고자 한다.

#당진문화재단#2023전시공간활성화지원사업#전시공간활성화지원사업#전시공간#순성미술관#당진전시#전시#6월전시#정세훈작가#회화



[갤러리늘꿈]

화정 김무호 초대전 23.06.02. ~ 06.21.

문인화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과감한 만남

우리나라 남종화의 큰맥을 이어가는 문인화의 거장인 화정 김무호 선생님의 작품을 당진시민이 공유함으로써 의식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의도하고 있다. 전통 기반의 문인화와 2000년대 미술계의 주류 양식인 포스트모더니즘의 만남을 보여주는 이번 전시는 과감한 시도의 현대 문인화를 펼쳐내고 있다.

#당진문화재단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공간활성화지원사업 #갤러리늘꿈 #화정김무호초대전 #작가와와의시간 #당진나들이 #당진가볼만한곳 #당진 #당진시 #당진여행 #당진전시 #미술여행



[갤러리풀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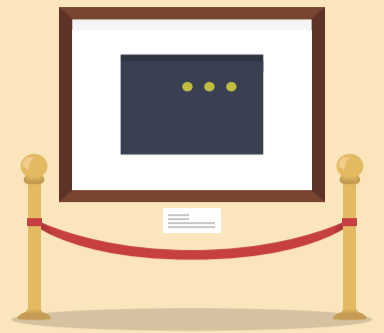
happy story 展 23.08.01. ~ 09.27.

행복을 그린, 행복을 그리는 작가

행복을 그리는 작가 한홍복은 행운의 의미를 담은 클로버를 모티브로 삼아 주로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며 느끼는 소소한 행복들을 그려왔었다. 반추상 작품이 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과거의 기억,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와 행복했던 이야기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대로 표현한 색채의 겹침과 형태의 불규칙성으로 표현해 작가의 생각을 담고자 했다. 작품의 우연한 물감의 번짐과 흐름으로 정서적 안정감과 힐링의 시간을 갖길 바라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전시를 통해 자신의 행복했던 시간을 회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당진시#당진문화재단#2023전시공간활성화지원사업#갤러리풀빛#한홍복작가#행복을그리는한홍복#한홍복#행복을그리는사람#8월전시#9월전시#당진미협#당진미술협회#당진설치미술회#학동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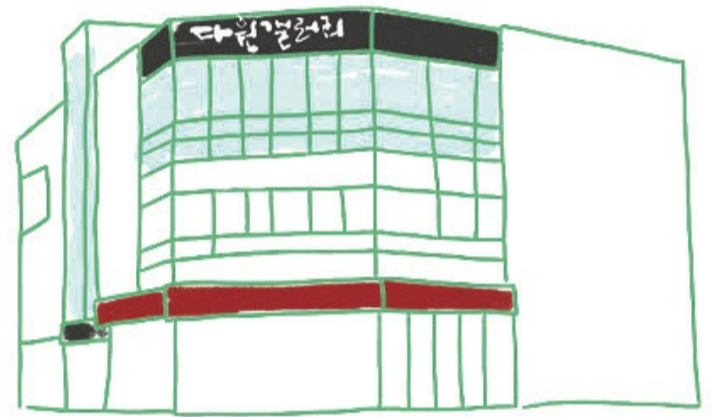
하반기 전시, 놓치지 마세요

[다원갤러리]

새롭게 해석하고, 해석을 재창조하다

이상용 작가의 작품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재창조하는 내용의 구성을 통해 미술작품에 대한 해석의 경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다. 벽면을 3 섹션으로 나누어 전시하고 동시에 자연이라는 '통합'의 주제를 반영했다. 소주제 속에서도 각각의 작품을 독립시켜 전시함으로써 관객의 명상적 경험을 유도한다. 짧은 감상평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지적인 참여까지도 가능하다. 또한 타인이 남긴 감상평을 통해 글로의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이상용 작가의 작품에 주된 기법인 마티에르 기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시를 더욱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 전 시 명 : 이상용 '공존' (가제)
- 전시기간 : 2023.11.18.(토) ~ 12.01.(금)
- 관람시간 : 10:00~18:00(휴관일 없음)
- 전시장소 : 다원갤러리
- 관 람 료 : 무료
- 문의사항 : 010-5218-2310



[면천읍성 안 그 미술관]

구성의 넘나듦...영성에 공명을 전하다

현대의 작가들로부터 높은 평을 받고 있는 박방영의 작품세계는 부드러운 속에 한정되지 않는 포용력에 있다. 박방영 화백 그림의 매력은 그의 선에 섞여져 빛어낸 것에 지나지 않고 그것을 보는 사람의 영성에 공명(울림)하여 기쁨을 가져다준다. 박방영은 대학에서는 구상과 추상의 유체화를 그렸고 대학원에서는 현대미술의 그룹을 결성하여 인스탈레이션 작품을 선보였다. 그러나 박방영 작가의 예술의 원점은 그가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발휘한 글씨에 있다. 상형학적인 글씨에 그림을 얹음으로써 독특한 작품세계의 미학이 담겨져 있다. 전시활성화의 기획전을 통해 독특하고 고졸한 이 작품세계를 시민과 함께하고자 한다. 동양화풍에서 서양화로 한국화풍에서 형이상적인 서예 작품으로 넘나드는 구성들로 이뤄져 보여질 예정이다.

- 전 시 명 : 박방영의 해학(諧謔) 展
- 전시기간 : 2023.10.02.(월) ~ 10.31.(화)
- 관람시간 : 10:30~17:00(월·화요일 휴관)
- 전시장소 : 면천읍성 안 그 미술관
- 관 람 료 : 유료
- 문의사항 : 010-4245-9989



[한국도량형박물관갤러리]

새의 시각적 영상에 시를 더한 작품

새라는 시각적 영상에 시를 접목시킨 전시로 자연친화적인 새를 통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문화 속에 나타난 다양한 새들을 직접 촬영한 작품으로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며 사진이 시를 들려 주는 듯한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직접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를 통해 전시를 더욱 생생히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전 시 명 : 우리고장 새(鳥)와 시(詩) 문학과의 만남
- 전시기간 : 2023.10.01.(일) ~ 10.31.(화)
- 관람시간 : 09:00~17:00(일·월요일 휴관)
- 전시장소 : 한국도량형박물관 갤러리
- 관 람 료 : 무료
- 문의사항 : 010-7585-9739



지역예술인을 만나다 | 김용남 한국미술협회 당진지부장

“당진,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문화도시가 되길”

1996년, 19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당진미협
현재는 87명 회원으로 늘어 다방면서 활동
아트페스티벌 및 찾아가는 미술전시 등을 통해 미술 저변 확대



지역의 미술인들이 모인 한국미술협회 당진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당진미술협회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미술협회 당진지부(이하 당진미협)는 당진미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예술가들의 권익을 옹호하며, 미술의 대외적 교류와 미술인 상호 간의 협조 및 지방문화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둡니다. 한국미술협회에 등록된 정회원으로 구성되어있는 전문 미술 단체입니다.

당진미협은 1996년 초에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에 정식 승인됐는데요. 당시 지역의 미술 교사와 전업 작가 등 지역화가 19명이 회원으로 함께 했습니다. 초대지부장으로 박기호, 부지부장으로 허덕무, 김영숙, 사무국장 장철석, 감사 최평곤 이경숙으로 임원진이 구성돼 창립했습니다. 그때 동양화, 서양화, 조소, 공예 분과로 나눠 이뤄졌고 그해 11월에 창립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1996년 19명으로 시작됐던 당진미협이 현재 서양화1, 서양화2, 한국화, 문인화, 서예, 조각, 공예디자인 분과로 나뉘어 있으며 총 87명의 회원이 속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진미술협회가 매년 다양한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첫 번째로는 아트페스티벌이 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이 아트페스티벌은 창작 회원 전시와 시민이 함께 즐기는 연계 프로그램, 꿈과 끼,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초·중·고 학생 미술 실기 대회 등으로 열립니다. 연계 프

그램 중에는 부스 체험과 전문 모델 공개 크로키, 작품 감상 하브루타 및 토크쇼는 미술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하는 행사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트페스티벌 중 열리는 사랑 나눔 아트페어 판매 전시는 전시 기간 중 대작부터 소품까지 여러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동안 미술품을 산다는 것이 멀게만 느껴졌을 텐데요. 이 행사를 통해 전시 작품뿐 아니라 정기전 작품을 살피고 작품을 구매해 소장하며 미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객들은 작가로부터 작품 설명을 듣고 저렴한 가격에 작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작품 판매금의 일부는 이웃 사랑 실천에 쓰이기에 작가와 구매자 컬렉터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취지를 알기에 해마다 꾸준히 관심을 가져 주시는 컬렉터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두 번째 주요 활동에는 찾아가는 미술 전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시관을 찾지 못하는 시민에게 지역 삶 속에서 즐기는 문화예술교육을 자연스럽게 접하고자 학교와 학교 밖 지역 공동체를 찾아가는 이동식 순회 미술 전시입니다. 예술의 긍정적 영향과 가치를 시민과 공유해 좋은 영향을 전하고 또 작가들에게는 작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 문화와 예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함께 작품에 대한 해설과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로 체험의 기회까지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공미술 벽화 프로젝트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이나 낡고 오래된 벽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인데요. 작가들이 참여해 문화적 예술 거리로 재생시켜 시각예술을 통한 환경개선과 미적, 정서적, 예술적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대외지파출소와 솔피성지, 당진초, 당진1동 육교, 면천면 동문길, 지역아동센터, 당진고 옆 등의 벽화를 꾸몄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하반기 당진고 옆 건물 벽화를 이어서 꾸밀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당진미협이 당진예술의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당진예술제에 참여해 올해는 문협과 플라보 깃발 전시를 개최합니다. 그 외에도 당진공공미술 사업을 남산공원과 합덕 성지순례길 일대에 설치했으며, 여러 기관에서 협조 시 퍼포먼스나 플라보 전시 등을 통해 작가의 재능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진미협의 장점이 있다면?

당진미협은 재능과 인성을 겸비한 탁월한 인적자원으로 구성했습니다. 학동인, 설치미술회, 장작미술협회 등 전문미술단체가 속해 있고 준미술단체 미술동아리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인재 배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들이 양성하는 동아리 단체로 청목회와 수채화연구회, 구상작가회, 문인화연구회, 먹그림사랑회, 꽃길문인화 동호회, 미추회, 상록문학회 등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서로 협력해 당진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유년기부터 실버 취미생에 이르기까지 미술 교육과 인재 양성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가 당진미협의 장점입니다.

앞으로 당진미술협회가 당진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술은 참 위대하고도 힘듭니다. 공간적 또는 눈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그래서 공간 예술, 조형예술 등으로 불리는데요. 시각적 또는 조형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감정이나 뜻을 표현하는 다원예술입니다. 작품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도 하고 꿈을 그리게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제약으로 인해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수록 주체성을 지니고 당진시와 상호협력 상생하는 예술단체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편 예술인들의 작품이 당진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도록 창작활동이 지원됐으면 합니다. 작가들이 맘껏 예술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복지나 기회의 장이 마련돼야 합니다. 당진이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문화도시가 됐으면 합니다.

당진미협은 정기전을 벗어나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국제교류전 및 전국적인 규모의 전시를 유치해 지방정부의 문화적 시각화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문화 다양성을 확보해 시민 누구나 문화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역 정체성을 갖춘 시립미술관을 지원하고 활성화 해 읍·면지역의 문화적 고립을 해소해야 합니다. 다양한 문화적 접근성을 통해 당진시민 누구나 함께하는 보편적 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전시 기획을 통해 예술 장르의 경계를 허물어 다양성 있는 문화 체험을 도모해나 가겠습니다. 미술과 음악을 접목시키고 무용과 연극을 더하는 등 장소에서 좀 더 다양한 문화 체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진미술협회장님이 미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현재 어떠한 분야에서 활동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어린 시절, 시골 마을에 있는 집 사랑채에서 전자문 소리가 흘러 나오던 것이 기억납니다. 은은한 묵향을 풍기며 고풍의 모습으로 한 자, 한 자 글을 써 내려가시던 조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시절 습자 시간에 선생님이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친구들도 관심을 보이니 자연스럽게 붓을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서예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서예는 그 사람의 정신과 사상, 인격과 인품을 드러내는 예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학문과 덕행을 높이고 인격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분야인데요. 여기에 그윽함과 고상한 정서까지 느끼게 해줍니다. 요즘 현대 서예에서 자형을 벗어나 문자의 의미를 심상으로 마음껏 표현하고 일필휘지 속에서 회외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이를 통해 묘한 울림까지 전하는 것이 서예의 매력입니다.

예술가로서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철학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현실을 이기는 용감한 서예가, 변화를 추구하는 진정한 서예술가, 전통의 기저(基底)에서 변화를 지상명제(至上命題)로 여기며 시대 정체성을 꾸준히 쫓아야 합니다. 서예에는 다양한 서풍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잘 쓰는 것에 객관적이고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이 추구한 변화된 현대 서예술이 감상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완성도는 보장돼야 합니다. 갈 길이 먼 그림의 미학이지만, 서예술을 통한 예술적 삶은 저희 삶의 미학입니다.

당진시가 문화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당진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문화로 지역 발전,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문화 매력 국가를 선도하는 문화도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진시가 당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서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고, 그래서 문화로 지역경제가 살아나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지역 문화를 선도하길 바랍니다. 지역문화가 동반 성장하는 문화도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진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오성환 당진시장님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도심 속 명품 호수공원 등 시민 휴식 공간을 확대하고 면천읍성, 솔피성지 등 당진이 가진 역사 문화 자원을 보존·발전시켜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 건립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살고 싶은 ‘명품도시’ 당진을 만들어 가는 계획을 말하셨습니다. 이 준비에 시각 분야의 많은 활동이 필요합니다. 당진 시민을 위해 당진미협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하겠습니다.

문화축제



인재진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총감독, 호원대 공연미디어학부 교수)

축제의 시대가 오고 있다



2020년 갑자기 전 세계에 몰아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은 축제의 시계를 완전히 멈춰버렸다. 지난 3년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후유증을 남겼지만 지금 그 어려웠던 상황들을 모두 극복하고 다른 단계로의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 멈춰서 있던 축제의 시계를 다시 작동시킬 필요성을 절감하며 축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기억들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이다. 축제란 무엇인가? 모를지 축제란 유히 본능을 탑재한 인류의 시작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했었고 인류의 발전에 맞춰 변화하고 진화해왔을 것이며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하며 오늘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인간이 모여있는 곳에는 반드시 축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의 인류학자 장 뒤비뉴(Jean Duvignaud)의 이야기 '축제의 본질은 인간의 의식을 지상에서 가장 즐거운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이다'라는 말은 매우 정확한 정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인간은 도시에 모여 산다. 도시를 구성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요소들이 있지만, 축제 또한 그 도시의 중요한 상징이며 멋진 축제를 가지기를 바라는 것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축제의 가장 큰 기능은 시민들에게 치유와 활력을 제공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적지 않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와 광장이

발달한 유럽에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축제들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속에 매우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대부분의 유명 축제들이 중소도시에서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인구 천만 이상의 메가시티에도 유명한 축제들은 존재하지만, 축제 감독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축제의 본질에서 약간은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 경제적 관점과 관광객 유치 등의 미시적 접근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며 축제를 도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자리잡은 당진시를 바라보면 도시의 규모와 인구 그리고 축제 인프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큰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기존의 축제들도 발전시키고 새로운 축제들도 만들어 당진만의 특별한 지역 문화로 자리잡도록 애정이 어린 사선으로 긴 호흡을 함께한다면 당진은 축제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필자는 당진 출신으로 당진을 이야기할 때 능담처럼 하는 말이 있다. '당진은 없는 건 없는데 내세울 것도 없는 곳'이라는 이야기...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축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멋진 축제를 당진 시민들이 즐기고 사랑하면 어느새 그것은 자랑이 되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문화 자산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축제의 힘이며 대체 불가한 문화의 힘이기도 하다. 그러나 멋진 축제를 만드는 것은 정·말 힘들다.

당진시와 당진문화재단이 지난 4일 인제진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총감독을 초대해 '축제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인재진 감독은 당진 출신으로, 올해로 20년 차를 맞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첫 회부터 기획하고 총괄하고 있다.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가을을 대표하는 야외 페스티벌이다. 아시아 페스티벌 중 유럽 재즈연합(이하 EFN)에 가입 승인을 받은 페스티벌은 자라섬이 유일하다. EFN은 세계 최대의 재즈 네트워크로서, 유럽을 중심으로 35개국에 약 200여개의 재즈 단체가 속해 있다. 올해 역시 유럽과 미국 등 58개 국가에서 아티스트 380팀을 초청해 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인 감독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시사하는 점과 페스티벌이 열리게 된 계기 그리고 성공적인 축제를 만드는 방법을 당진 시민에 전했다.

왜 자라섬에서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게 됐을까?

재즈 관련 분야에서 공연 및 음반 기획자로 활동해 왔던 인 감독은, 친구 대신 한겨레에서 주최한 강연 무대에 섰다. 인 감독은 늘 그랬듯, 한국에서도 재즈 페스티벌이 열려야 한다는 내용을 강의했다. 강의 당시 자리해 있었던 경기도 가평군 공무원이 인 감독에게 가평에게 재즈페스티벌을 개최하면 어떠냐고 연락했다. 그 제의에 인 감독은 처음에 가평을 갔다. 공무원과 함께 가평 여러 곳을 다녔다. 하지만 축제를 개최하기에는 마땅치가 않았다. 그때 공무원이 '여기라도 가보겠냐'며 제안

한 곳이 자라섬이었다. 자라섬은 지대가 낮아 소양강댐을 방류하면 물에 잠긴다.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아 황무지로 방치된 곳이었다. 인 감독은 이곳이 페스티벌을 개최하기에 제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주변에 많았다. 비가 오면 물이 차고, 때로는 가라앉은 자라섬에서 페스티벌을 개최하려니 쉽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자신 있었다. 자라섬을 알기 전,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핀란드 포리 페스티벌을 탄생시킨 기획자 유리키 캉가스를 통해 페스티벌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한국에서 페스티벌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시사하는 점

인 감독이 말하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시사하는 점에는 세 가지가 있다. 가평군은 인구 6만2000여 명의 작은 동네다. 면적은 서울보다 1.7배가 크지만 재정자립도도 낮고 인구도 적은 곳이었다. 이 작은 동네에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됐다. 또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기 시작한 이후 문화 트렌드로 야외 공연예술축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락, 클래식 등 자라섬 페스티벌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야외 공연이 열리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은 재즈로는 전 세계는 물론 아시아에서 두각을 보이지 못한 곳이었다. 하지만 페스티벌이 열리면서 관심이 모이기 시작했다. 한국이 우선 거론될 정도다. 즉, 축제가 지역을 넘어 세계에 알려질 정도로 큰 파급력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인 감독은 성공적인 축제를 만드는 5가지 방법에 대해 강조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경청하고 앉아 있을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콘텐츠는 제목만 보고도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콘텐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먹거리다. 그는 축제를 일탈이고 즐거움의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먹거리가 잘 갖춰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나이와 성별, 소득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축제에 맞는 먹거리를 갖춰야 한다. 또한 축제에서 중요한 것이 편의시설이다.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축제가 된다. 인 감독은 "축제의 성패는 관광객의 재방문 의식"이라며 "축제는 연속성 있어야 하며 관광객의 불편은 다음 축제에 보완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축제는 연속성과 항구성(지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공예산으로 운영되는 축제는 순환보직인 공무원이 맡기에 담당자가 바뀌면 축제를 개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자라섬 페스티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축제를 개최할 때부터 담당 공무원이 보직을 바꾸지 않고 버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열정을 가진 지자체 담당자가 함께 3-5년만 버티면 멋진 축제를 만들 수 있다"며 "담당자가 처음에 세운 원칙을 지키려 한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축제를 만드는 5가지

문화수다



오이돈(작곡가, 호서대 명예교수)

벼룩의 노래

무더위를 이겨내는 방편으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더위팔기'라는 놀이를 했다고 한다.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옆집을 찾아가 친구 이름을 불러 그 친구가 대답하면 '내 더위 사가라'며 더위를 파는 놀이인데, 이렇게 하면 그해 여름에는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했었다. 하지만 친구가 대답을 않고 먼저 '내 더위 사가라'고 소리치면 오히려 더위를 팔려 했던 쪽이 더위를 먹게 된다는 놀이다.

해학으로 무더위를 이겨내 보고자 했던 조상들의 재치가 엿보이는 '더위팔기' 놀이다. 이처럼 해학이야말로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일 터, 이번 호에서는 베토벤과 무소르그스키의 <벼룩의 노래>(The Song Of The Flea)에 담긴 해학과 웃음의 힘을 빌려 쉽게 몰려나지 않는 더위를 한번 물리쳐보고 싶다.

'해학(諧謔, 영어: humor)'의 사전적 정의는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인데, 보통 주어진 현실을 과장하거나 비꼬아 표현한다. 그러니까 '해학'은 사회적 현상이나 현실을 우스꽝스럽게 드러내는 방법일 수도 있고, 한편 문학적인 의미에서처럼 어떤 비합리적인 과격함을 통해 흥미를 높이는 장치이자 고통이나 갈등을 극복하는 웃음일 수도 있겠다.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희곡 <파우스트> 1부에는 '라이프치히 아우어바흐 지하 술집'(Auerbach's Cellar in Leipzig) 장면이 나온다.

음침한 연구실에서 세상 모든 지식의 탐구를 목적으로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는 파우스트에게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 연구실 밖의 세상을 보여주겠다고 안내한 곳이다. 그곳에서 파우스트는 연구밖에 모르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삶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술을 마시며 삶을 즐기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술을 마시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노래를 들려준다.

옛날 옛적 어느 왕이 커다란 벼룩 한 마리를 마치 왕자처럼 귀하게 길렀다네.
재단사를 불러 벼룩에게 고급 비단옷을 만들어 입혔다네.
구김살 없는 바지에 갖가지 리본 장식 그리고 가슴 위의 십자가까지 멋지게 차려 입은 이 벼룩 왕자님,
당장 재상으로 임명되어 큼직한 훈장까지

받았다네.
벼룩의 형제자매들도 높은 벼슬을 차지했다네.
지독하도 고통을 겪은 이들은 궁궐의 귀족들.
심지어 왕비와 시녀들까지 모조리 따끔따끔 다 물어뜯었다네.
그러나 누구도 감히 그 벼룩을 밟아 죽이지 못했다네.
가렵다고 긁지도 못했다네.
우리 같았으면 그 벼룩 당장 밟아 요절을 냈으련만.

괴테가 당시 작센공의 폭압과 부패한 간신아첨꾼들의 행태를 메피스토펠레스의 입을 빌려 신랄하면서도 유쾌하게 풍자하고 있는 "벼룩의 노래"다.

이 가사에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과 무소르그스키(Modest Mussorgsky, 1839-1881)가 음을 입혀 각각 독일어 가곡과 러시아 가곡으로 탄생시켰는데, 무소르그스키의 노래가 더 많이 알려져 있다.

1879년에 작곡된 무소르그스키의 <벼룩의 노래>는 러시아어로 번역된 가사를 사용하고 있다. 생계를 위해 택했던 공무원 생활을 청산하고 알토가수 레오노바(Darya Leonova, 1829-1896)의 피아노 반주자로 활동하던 무소르그스키가 그녀를 위해 작곡한 노래였으나, 이후 전설적인 러시아 출신 베이스 표도르 샬리아핀이 불러 더욱 유명해지며 전 세계 수많은 베이스 가수들에게 사랑받는 노래가 되었다.

무소르그스키의 <벼룩의 노래>는 전체적으로 비아냥거리는 투의 두툼한 노래인 점이 특징인데, 특히 노래선율이 끝날 때마다 단순하지만 힘이 느껴지는 피아노 전주의 선율 모티프를 차용해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 벼룩, ha, ha, ha, ha, ha, 벼룩/벼룩, ha, ha, ha, ha, ha, 벼룩! - 비웃음 소리가 더해졌다. 노래는 길게 이어지는 호탕한 비웃음 소리가 짙은 인상을 남기며 마무리되는데, 괴테의 원작에는 없는 이 비웃음 소리를 더함으로써 무소르그스키는 날카로운 풍자와 해학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렇듯 무소르그스키의 <벼룩의 노래>가 괴테의 냉소적 비유를 러시아어의 생생한 역량을 담은 선율 속에 구현하여 당시 러시아 관료들의 부패와 위선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강조했다면, 베토벤의 노래는 참 재미있

고 유쾌한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음악이다.

<여섯 개의 가곡, Op. 75> 가운데 세 번째 곡으로 'Aus Goethes Faust'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베토벤의 <벼룩의 노래>(Mephistos Flohlied)는 익살스러움이 가득하다. 냉소적 비유와 함께 묻어나오는 괴테의 시의 유머러스한 측면을 즐겁고 유쾌한 음악으로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인데, 특히 피아노 반주가 작고 가벼워 빠르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벼룩의 움직임의 재미있고 재치 넘치게 표현하고 있다.

사실 괴테의 '파우스트' 1부에 나오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풍자적 노래를 음악으로 표현한 곡들에는 무소르그스키와 베토벤의 가곡 외에도 프랑스 작곡가 베를리오즈(Hector Berlioz, 1803-1869)의 <파우스트의 겁벌>(La damnation de Faust Op. 24) 중 짧은 프랑스어 <벼룩의 노래> (Une puce gentile chez un prince)도 있고, 베토벤의 <벼룩의 노래>를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한 리스트의 작품(Mephistos Flohlied S468/4)도 있다.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이 가고 이제 분명 절기상 가을인데, 여전히 한낮의 더위는 지난 여름 더위에 버금갈 것이라는 예보가 들린다. 괴테의 해학과 풍자 그리고 거기에 음을 입힌 여러 작곡가의 음악적 재치와 유머가 자주 생각나는 9월이 되려나 보다.



벼룩의 노래악보



아우어바흐 지하술집

나는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인생의 노년기까지 실 틈 없이 숨 가쁘게 달려온 시니어 여러분!
노는 사진관은 사진으로 놀며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그리고 앞으로의 자신까지 돌아볼 수 있는 즐거운 사진 놀이터입니다.
노는 사진관에 오셔서 나의 인생을 네 컷의 사진으로 재미있게 담아보세요!

교육대상 60세 이상 시니어
교육인원 15명 *수강료 전액무료
접수기간 2023. 08. 22.(화) ~ 09. 01.(금) [10일간]
※ 접수마감일 18시 이내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전화 및 온라인 접수
접수처 ① 당진문화예술학교 홈페이지 수강신청
② 당진시 평생학습통합플랫폼 '배움나루' 접수
문의 당진문화재단 예술교육부 041-350-2933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주관 충남문화관광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 당진문화재단 당진문화예술학교

노(老)는 사진관

PLAY with PHOTO

2023. 9. 6 WED ~ 11. 22 WED
교육기간 | 14:00 ~ 17:00 / 매주 수요일 12회차
당진문화예술학교 세미나실

문화책방



이상민 작가

류진현의 『ECM TRAVELS』 새로운 음악을 만나다

만남은 우연(偶然)을 가장(假裝)하고 다 가온다. 대체로 우연은 필연(必然)의 길을 걷다가 문득 마주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던 사람에게 만남의 순간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우연처럼 다가오는 것이다. 새로운 음악을 만나는 일도 비슷하다. 우연히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듣게 된 음악이나 카페에서 흘러나온 음악에 매료되어 음반을 찾게된다. 다른 무언가를 찾다 낯선 이름을 알게 되는 것처럼.

클래식 음악을 열심히 듣다 보면 바로크와 고전의 틀을 지나 낭만의 숲길과 산맥을 넘으면 현대음악이라는 또 다른 지평을 만난다. 때론 시간을 거슬러 르네상스와 중세로 회귀하는 여정도 있다. 나도 비슷한 경우였고 그러다 ECM의 음악을 만나게 되었다. <겨울 속의 겨울>이라는 단순한 선율이 반복되며 침묵의 공간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나를 바라보는 기분이었다. 아르보 파르트라는 에스토니아의 동시대 음악가의 작품이었다. 음악의 경계마저 사라지는 이 음악은 나를 ECM의 음반 목록을 찾아보게 했다. 음반의 이미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다. 표지 사진들이 한마디로 예술이었다. 나무 두 그루와 가냘픈 달이 떠있는 밤의 들길 사진으로 슈만의 불안한 내면과 낭만성을 느낄 수 있었던 체흐트마이어 사중주단의 슈만 현악사중주 음반도 내마음을 훑치고 말았다. 새로운 천년이 열리던 그즈음 나는 ECM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나기 시작했다. 우연이 인연으로 거듭난 것이다.

『ECM TRAVELS』(2015년, 홍시)는 음악을 지독하게 사랑한 음악애호가인 ECM 음악 안내서이다. 저자는 록과 재즈를 즐겨들던 고교 시절 오리건(Oregon)의 음반이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다양한 음악을 찾아서 듣고 소개하는 직업까지 얻게 되었다. 특히 ECM 음악을 소개하고 2013년 'ECM:침묵 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는 전시회의 자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15년에 출간한 『ECM TRAVELS』는 ECM의 대표적 연주자 앨범 33장으로 음악을 소개하는 음악 예세이다. 이 책은 절판되었고 최근 『ECM 50 음악 속으로』(2021년, 에이치비프레

스)라는 제목으로 최근의 신보를 추가해 새롭게 출간되었다. 이전에 출간된 책은 ECM을 대표하는 키스 자렛, 팻 메시니, 칩 코리아, 게리 버튼 등 현대 재즈의 명인들의 7,80년대 명반을 소개하는 1부 '거목들의 숲', ECM New Series를 소개한 2부 '안개 속을 보다', ECM의 새로운 내일을 보여주는 3부 '투명하고 평온하게 빛나다'로 이루어져 내용상으로 더 충실하다. 구성과 편집에서도 매력이 넘치는 책이다. 최근의 책은 소개된 음반은 늘었지만 글은 더 짧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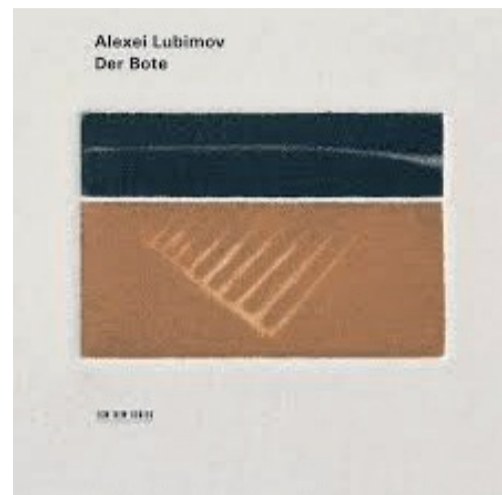
1969년 26살의 만프레드 아이히(Manfred Eicher)가 만든 ECM Records는 반세기가 넘는 동안 1600여장이 넘는 음반을 발매했다. 현대 재즈로 시작했지만 1984년부터 고전과 현대 음악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ECM New Series가 시작되어 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Edition of Contemporary Music의 이니셜 ECM은 새로운 음악 풍경으로 이끄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상업성보다 좋은 음악을 추구했던 제작자의 철학을 지켜왔다. 음악적 감동 뿐만 아니라 말보다는 침묵의 사유(思惟)로 이끄는 앨범 커버는 음반을 미학적 차원으로 격상시켰다.

ECM의 음악을 나를 열심히 듣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미지의 땅을 걷는 기분이다. 키스 자렛의 투명한 피아니즘과 자유로운 즉흥 연주나 구스타브센 트리오 등의 음악적 편안함에는 가끔씩 지친 일상을 맡길 때도 있지만 재즈보다 클래식에 친숙한 나로서는 이제는 고전이 된 현대 재즈 명인들의 음악에 아직 몸을 다 맡기지 못하고 있다. 기돈 크레머, 킴 카시카 시안, 언드라스 슈프 등 클래식 음악계에서 정상적 자리에 오른 이들이 새롭게 펼쳐내는 클래식과 낯선 이방의 신에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ECM New Series 신보에 더 귀를 기울이는 편이다. 고전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추구하며 경계를 허무는 음악적 해석과 실험, 섬세한 공간감이 살아있는 뛰어난 녹음, 예술적인 앨범 표지는 변함이 없고 음악적 상상을 이끌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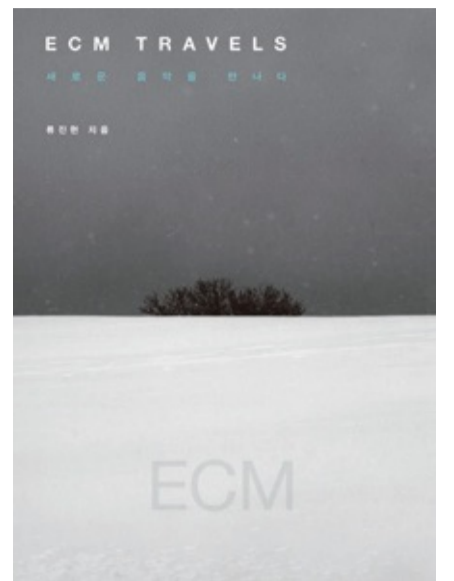
몽환이 망각에 이르는 아르보 파르트

의 <겨울 속의 겨울>, 피아니스트 루비모프가 들려주는 <피아노의 비가(悲歌)>는 C.P.E.바흐의 <환상곡>에서 존 케이지의 <풍경>과 아르메니아의 작곡가 실베스트로프의 <비가>는 나에게 아름다운 것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것임을 들려준다. 실제로 보지 못한 영화이지만 음악만으로 영상을 떠올릴 수 있는 카라인드로우의 영화음악도 있다. 만수리안, 실베스트로프와 같은 작곡가들의 작품을 들 때면 어둠 속에서 눈을 떠보니 비현실적인 황무지에 던져진 내 모습이 어련거린다. 영혼의 심연으로 이끄는 무반주 합창의 아름다움을 들려주는 힐리어드 앙상블의 성가 음반도 있고 '유리알 유희'와 같은 투명한 슈프의 바흐와 슈베르트 음반들도 늘 가까이 있는 음반들이다.

ECM은 음반이라는 매개를 통해 현대와 문명의 전원을 잠시 꺼두게 만드는 음악이다. '침묵, 다음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추구하는 ECM의 가치는 결국 완전한 침묵에 도달할 수 없는 음악적 이상(理想)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새로운 음악풍경 속에 빠지고 싶다면 『ECM TRAVELS』라는 지도를 펼쳐놓고 ECM이라는 낯선 땅으로 떠나보길 권해본다.



루비모프



ecm travels



Zehetmair Quartett



part alina



labelwatch

개인 회원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당진시민들을 위한 특전으로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진행되는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를 더 쉽고,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회원

문화바람·문화아람·문화보라 법인회원은 문화를 하나의 꽃(花)으로 설정하여 움트고, 열매를 맺고, 문화의 결실을 함께 나누고 향유하는 회원의 의미입니다.

가입 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가입
- 현장 방문 가입
- 전화 가입(041-350-2911)

등급	개 인		
가입기간	1년	2년	3년
가입비	1만원	1만 5천원	2만원

등급	법인(1년기준)		
	문화바람	문화아람	문화보라
연회비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회원음악회 초청	50매	100매	150매
기업행사 대관 장소 제공	연1회	연2회	연3회
재단 소식지 문화가 이슈 광고	연1회	연2회	연3회
재단 소식지 기업로고노출	4개월	8개월	12개월

등급	개 인	법 인
공동혜택	- 당진문예의전당 기획공연·전시 10~30% 티켓할인 - 당진문예의전당 공동기획 대관공연·전시 10~30% 티켓할인 (* 단, 회원 등급별로 예매 가능한 좌석 등급 및 매수가 상이할 수 있음) - 문화(유료)회원 선예매 서비스 제공 - 월간프로그램가이드 구독 서비스 - <문화가 이슈> 소식지 구독 서비스	

• 숫자로 보는 당진문화재단의 10년

당진문화재단의 10년 전과 후를 돌아보다



10년 전 당진문화재단이 출범했다. 그때 주어졌던 역할에 당진문화재단은 안주하지 않았다.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넘어서 전문 예술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계속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왔다. 전국 공모 사업을 이끌어 오는 것 외에도 당진문화재단이 주체적으로 공연 기회까지 나섰다. 물론 아직 풀지 못한 과제도 있다. 당진문화재단이 설립 10년을 기점으로 이 과제를 풀고 다시, 더 높게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당진문화재단은 세입 예산, 13억6000만 원에 세출 예산 12억2500만 원으로 10년 전 출범했다. 10년이 흐른 지난해는 세입 예산이 5억6600만 원, 세출 예산이 2억8800만 원으로 각각 24%, 42%가 늘었다. 출범 이후 각종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예산이 4.1배가 확대됐다. 하지만 업무량이나 성과의 증가에도 인원은 1.2배가 늘어난 것에 그쳐 아쉬움으로 남았다. 출범 당시 정원이 18명이었으며 현재는 그보다 4명이 증가한 22명이다.

지역 예술인 단체 지원

당진의 문화예술인은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2021년 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당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798명에 이른다. 2023년 현재는 이때보다 더 많은 문화예술인이 당진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숫자는 전체 인구와 대비했을 때 다른 지자체 대비 많은 문화예술인이 당진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예술인 영역까지 넓히면 많은 시민이 문화와 예술 속에서 함께 하고 있다.

당진문화재단은 지난 10년간 시민들이 문화주체가 되어 일상 속에서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문화예술장작 지원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했다. 당시 65개 단체에 1억9000만 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지원 단체 수와 금액이 증가했다. 지난해는 총 69개 단체에 2억8150만 원이 지원됐다.

문화예술 교육 참여자 수 늘어

당진문화재단은 지난 10년간 시민들이 문화주체가 되어 일상 속에서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시민사회화단체의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공연 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독려해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당진문화재단은 일회성 물질적 지원을 지양하고 시민들의 문화 활동을 독려해 자생할 수 있는 기틀과 동력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해 왔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교육 참여자 수와 이들이 지원하는 예산도 처음과 비교했을 때 늘었다. 2016년 기준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한 학생, 시민, 전문가는 총 919명이다. 이들에게 지원된 예산은 1억2934만 원. 한편 지난해는 총 1473명이 참여했으며 예산은 2억 5048만 원이 지원됐다.

여러 분야의 예술 지원 확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은 지역 문화재

단의 설립 목표 중 하나이자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업 부문이다. 실제로 문화재단 설립은 문화예술진흥법이나 각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거해 진행된다. 이러한 가운데 당진문화재단은 지난 10년간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활동 지원 등 사업을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 왔다. 당진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해 당진 예술인 및 문화예술 단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창작활동을 활성화 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분야 별 지원도 늘려 나가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문학 1곳 △공연 16곳으로 총 17곳이었다. 하지만 2022년에는 △문학 7곳 △시각 22곳 △공연 32곳 △복합 14곳으로 총 75곳에 이른다.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

당진문화재단이 설립과 동시에 당진문예의전당을 위탁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한 변화는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질의 향상'이었다. 지역에서 보기 어렵던 예술가들을 지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 오래된 소외감에 대한 해소이자 지역에 대한 자긍심까지도 불러 일으켰다. 당진문화재단 설립 10년 사이 기획공연과 전시의 횟수가 수배로 증가했다. 양적 성장과 함께 다양한 기획과 국비 유치 등을 통한 질적 성장도 이뤄졌다. 국내외 대형 공연과 유명 예술인이 당진을 찾았고 대관 공연이 주를 이뤘던 이전과 달리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기획·제작 공연이 펼쳐졌다.

이를 통해 공연, 전시 매니아층은 물론 초심 관람객과 어린이, 청소년 관객 등 관객층도 다양해졌다. 재단은 지난 10년 간 시민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연, 전시 사업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문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문

화배려계층을 지원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당진문예의전당 누적 관람객 수는 2013년 7만1409명이었다. 그러다 2018년 10만을 넘어선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줄어 들었다. 그리고 다시 2021년을 넘어 2022년에 이르며 조금씩 증가 추세를 이다.

특히 전시관 누적 관람객 수는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7년, 1만1019명에서 다음해 1만4013명, 1만6108명으로 증가한다. 코로나19가 심했던 2020년에는 급감했으나 다시 2021년에 들어서서 2만9787명으로 올랐다.

유료 문화회원 1300명 넘어

관람객이 늘면서 당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당진문예의전당 누적 유료 문화회원 수가 1300여 명을 돌파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시민들이 활발한 문화생활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당진문예의전당 문화회원도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2019년 12월 기준 945명에서, 2020년 12월 기준 678명 그리고 2021년 12월 기준으로 492명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공연과 전시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는 등 오감으로 느껴야 하는 문화예술의 한계의 결과다.

이 상황에서 당진문화재단은 더 질 높은 콘텐츠를 구축했다. 여기에 코로나19 거리두기까지 완화하면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열렸고 시민이 모였다. 그러자 회원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22년 12월 기준 1012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으며, 2023년 8월 기준으로 유료 회원이 1411명에, 무료회원은 2만2437명에 이르렀다.

또한 기업 법인 회원도 지난해부터 참여하고 있다. 제1호 법인회원인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를 시작으로 올해 제2호로 두원이에프씨(주)가 법인회원으로 참여했다. 법인 회원 유치를 통해 당진문화재단은 지역 문화를 선도하고 문화 메세나 역할까지 이끌고 있다.

당진문화재단 10년 변천사 2013~2022



2013	2014	2015	2016	2017
01.17. 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 개최 재단 이철환 이사장 취임 및 재단 이사회 출범	06.07. 제1회 생활문화예술제 당진문화동아리 주간 개최	09.06. 당진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02.29. 당진문화예술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업무협약(MOU) 체결	02.16. 당진문화진흥기금 사업설명회
02.20. 충청남도 법인 설립 허가	07.01. 제2대 김홍찬 이사장 취임	10.10. 2015 당진생활예술축전 개최	03.07. 4차 변경 (1차 2월 - 4월)	03.24. 당진문예의전당 - 당진시복지재단 업무협약(MOU) 체결
03.20. 당진문화재단 창립식 개최 재단 이사회 개최	12.10. 전문예술법인 지정 (지정번호 제2014-2호)	12.18. 당진문화예술학교 단독수익 운영	03.11. 당진문화재단 - 예술의전당 국가안전지원개발 연구소 업무협약(MOU) 체결	05.31. 당진문예의전당 우수작 협약
03.21. 초대 문목배 사무처장 취임			03.19. 당진아트프리카넷 개최	06.29. 프랑스 국립 스트라스부르 댄서오케스트라 공연
05.13.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수익 당진문예의전당 문목배 경영 취임(경직)			05.23. 문화예술인력 선진지 견학(일본)	09.27. 제3대 이광남理事長 취임
05.27.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공동 수익			07.02.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전 '변역된 건축'	11.02. 당진문화재단 - 당진시속기능발전협의회 업무협약(MOU) 체결
06.01. 월간 프로그램 가이드 첫호 제작			10.24.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12.11. 당진문화재단 - 당진시산업단지협의회 업무협약(MOU) 체결
08.20. 당진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MOU) 체결 당진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12.23. 당진시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12.15. 피라니무설치가 협찬한 내한 공연
			12.29. 당진문예의전당 - 당진시여름음악회 업무협약(MOU) 체결	12.17. 당진여당 캠퍼스서커서티 창단연주회
			12.30. 당진문화재단 소식지 '문화가 ISSUE' 창간호 발간	

10주년 주요사업

2023 국립발레단X당진문화재단과 함께하는 꿈나무 교실



‘2023 꿈나무교실’은 국립발레단과 당진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당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모집해 2023년 3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당진문화예전당 리허설실에서 발레 교육을 받아오고 있다. 발레 교육을 통해 미래의 발레리나·발레리노를 꿈꿀 수 있는 기회와 성장기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체 사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정서적인 안정과 긍정적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3 꿈나무교실’ 학생들은 2023년 9월 3일, 발레에 대한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공연관람 견학을 다녀왔다. 관람 공연은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전막발

레 <해적>으로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진행되었다. 해당 공연은 하이라이트 장면을 해설과 함께 선보이며 정교한 해적 콘라드와 플로리아나 섬에 사는 메도라의 사랑과 모험을 그려낸다.

꿈나무 학생들은 공연 관람은 물론 백스테이지 투어를 통해 대형 극장의 무대 시스템을 직접 관찰하고 공연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경험해보며 견문을 넓혔다. 또한 국립발레단 단장 ‘강수진’ 발레리나와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강수진’ 발레리나는 꿈나무 학생들의 발레를 향한 꿈과 열정에 아낌없는 응원을 표했으며 10월 14일 당진문화예전당에서 예정되어 있는 ‘국립발레단 Fly Higher with KNB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돈키호테>’ 공연에 대한 격려를 보냈다.

올해의 작가전, 이종섭 展 ‘오늘은 참 재미있었다’



2023 아티스트 오브 당진, 올해의 작가전에 이종섭 작가가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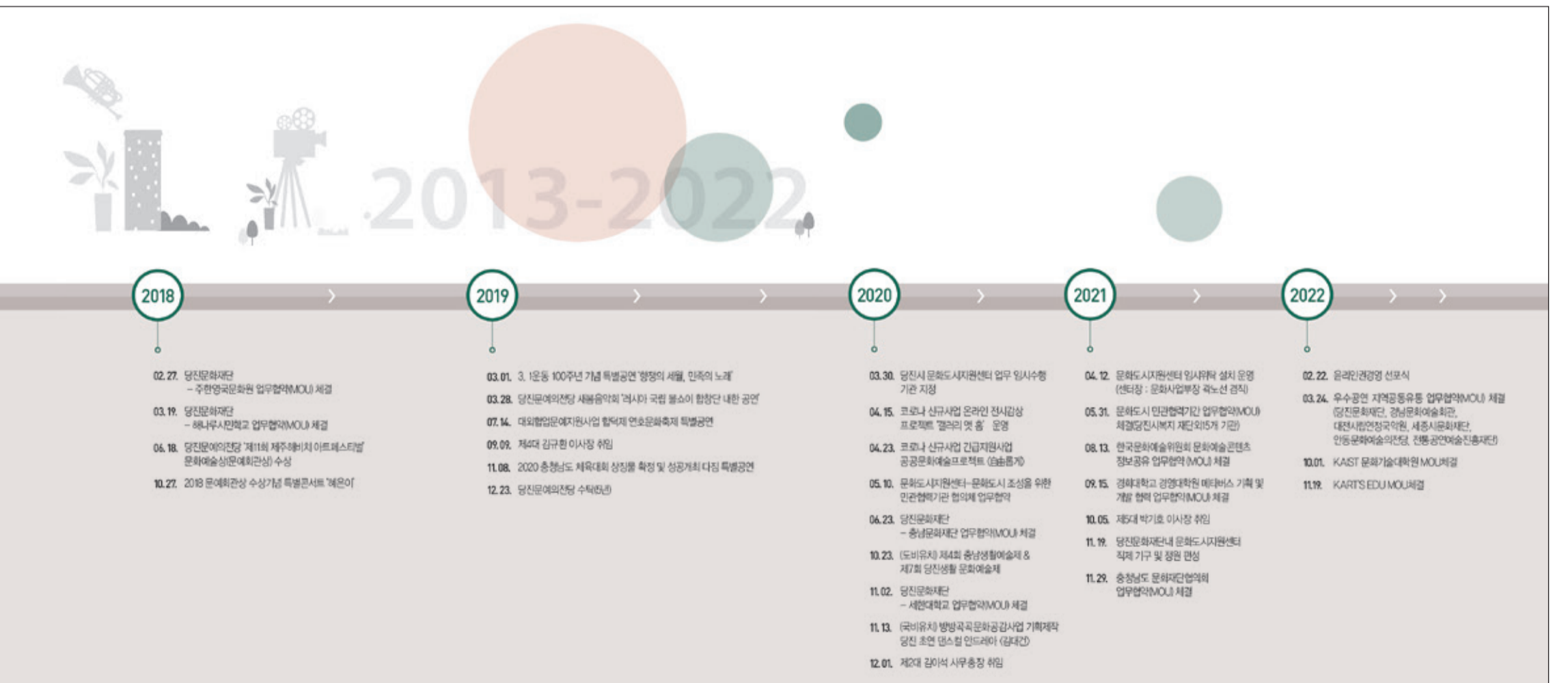
이종섭 작가의 작품 경향은 두 개의 시기로 구분된다. 1990년대까지는 <우리>와 <나>라는 주제가 작업의 주요 내용으로 형성됐다면 2000년대부터는 삶의 양식이 개인화돼 가는 지금의 모습으로 변모했다. 작업의 주제도 자연스럽게 ‘나로부터 출발하는 이야기’가 됐다.

이종섭 작가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 작가의 위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구체적 대안의 모색과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도에 나섰다. 그는 작업을 통한 소통으로 작가 자신의 세계를 확장했고 다

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갖고자 노력했다.

작가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2023 아티스트 오브 당진 ‘올해의 작가전’ 이종섭 展인 <오늘은 참 재미있었다>가 10월 13일 오후 1시부터 10월 27일 오후 6시까지 당진문화예전당 전시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설치 작품들과 카툰 형식으로 구성된 관객이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전시’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객은 수동적인 전시 관람이 아닌 능동적인 전시 관람을 체험할 수 있다.



올 가을 이 공연! 이 전시!

향수가 가져다주는 기억감상회 <메모리아, 당진>
향수(香水)를 만든 특별한 하루,
평생의 향수(鄉愁)로 기억되는 시간



- 사업명 향수가 가져다주는 기억감상회 <메모리아, 당진>
- 일정 [1회차] 2023.09.16.(토) 16:00/당산생태공원
[2회차] 2023.09.23.(토) 16:00/문화공감터
- 관람료 전석 무료
- 관람대상 당진시에 거주지 또는 직장의 주소를 둔 14세 이상 시민

전원경의 아트살롱 <그림콘서트>
재즈와 명화,
그리고 가을의 깊어가는 고독



- 사업명 [2023 당진문화가 있는 날]
- 공연명 전원경의아트살롱 <그림 콘서트> III. 가을, 고독한 뉴욕
- 일시 2023.09.20.(수) 19:30
-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
- 출연 출연해설자 전원경 외 4인
- 관람료 전석 1만원
- 관람대상 8세이상(초등학생이상)

국립발레단 Fly Higher with KNB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돈키호테>
국립발레단의 유쾌한 희극 '돈키호테'
당진의 발레꿈나무와 함께 오르는 무대



- 사업명 [2023 국립발레단X당진문화재단과 함께하는 꿈나무 교실]
- 공연명 국립발레단 Fly Higher with KNB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돈키호테>
- 일정 2023.10.14.(토) 17:00
-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관람료 전석 2만원
- 관람대상 48개월이상

이머시브시어터 <그래비티 스페이스>
관객 참여형 공연
몰입형 실감콘텐츠 이머시브 SF 뮤지컬



- 사업명 [2023 그랜드시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공연유통협력 지원사업 선정공연]
- 공연명 이머시브시어터 <그래비티 스페이스>
- 일정 2023.10.19.(목) ~ 10.22.(일) / 11:00, 14:00 (총 4일 / 8회)
-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관람료 전석 무료
- 관람대상 8세이상(초등학생이상)

걸작으로 만나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걸작과 오페라의
화려한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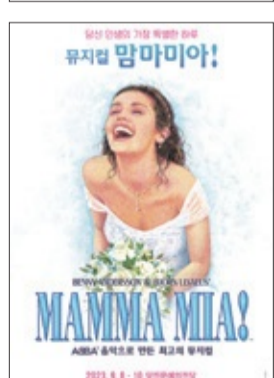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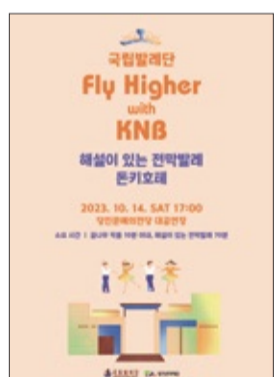
- 사업명 [2023 그랜드시즌_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 공연명 걸작으로 만나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 일정 2023.10.27.(금) 19:30
-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관람료 R석 2만원 / S석 1만원
- 관람대상 8세이상(초등학생이상)

“친정엄마와 2박3일”
애뜻한 모녀의 이야기
강부자X윤유선의 친정엄마



- 사업명 [2023 그랜드시즌]
- 공연명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 일정 2023년 11월 10일(금) 19:30 ~
2023년 11월 11일(토) 14:00, 18:00 (총 2일 / 3회)
-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 관람대상 8세이상(초등학생이상)

2023 공연 및 전시



10TH

Anniversary 2013~2023

10년의 축적, 새로운 도약

문화예술로 함께 빛나는 우리

2023년 당진문화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일상이 문화로 빛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입니다.

2023 GRAND SEASON

GRAND SEASON

한국가곡 100년을 노래하는 <2023 신춘음악회>
부다페스트 소모기 스트링 콰르텟 내한공연
뮤지컬 홀릭, 뮤지컬 음악과 사랑에 빠지다.
아카펠라그룹 엑시트(EXIT) Disney Medley
현남매 트로트 콘서트
조수미 콘서트 <In Love 사랑할 때>
명품연극 늘근도둑 이야기
뮤지컬 파리넬리 <Farinelli>
Vienna Classic
ABBA 음악으로 만든 최고의 뮤지컬 <맘마미아>
국립발레단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돈키호테>
이머시브시어터 <그래비티 스페이스>
걸작으로 만나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친정엄마와 2박3일
문화회원 <10주년 특별음악회>
유기 구라모토 콘서트 <Dear Heart>
2023년 송년음악회

Art festival

제10회 당진생활문화예술제 <열 번째 함께 빛나는 우리>

당진문화가 날

젊은 거장, 그리고 봄
전원경의 아트살롱 <그림콘서트>
I. 봄을 맞은 파리
II. 로마의 여름 햇살
III. 고독한 뉴욕커
IV.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바람
우리 아이들과 꿈꾸는 <동요콘서트>
세계평화기원 음악회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트리오 In>

키즈 스테이지 특별공연

국악뮤지컬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가>
춤추는 음악극 <거인 양갈로>
정형일 Ballet Creative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어린이 뮤지컬 <조선 이야기꾼 전기수>

ARTIST. DANGJIN

<이 시대의 작가전 I> 시대를 그리다-장철석
<이 시대의 작가전 II> 발 뜰-이상욱
<전시공유플랫폼> 그림 그리는 정원사
<올해의 작가전> 참 재미있었다-이종섭
<올해의 사진 작가전> 수라하다 - 인주리
<차세대 작가전> 유실물 보관소 - 장동욱

주최·주관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화예술평화재단 | 당진문화예술학교 | 당진문화도시지원센터 | 예매 | www.dangjinart.kr | 문의 | 041-350-2911-6

